

## 조선시대 통신사 특별전 《마음의 사궤, 여운이 물결처럼》

2025년 4월 25일~6월 29일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이정은\*

2025년 4월 25일, 서울역사박물관은 조선시대 통신사를 조명한 특별전 《마음의 사궤, 여운이 물결처럼》을 선보였다.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해로, 두 나라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크고 작은 교류전과 특별전이 개최되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통신사를 주제로 그 첫 시작을 열며,<sup>1</sup> 한국과 일본 20개 기관에 소장된 총 128점의 통신사 관련 다양한 유물을 한 자리에 전시했다.

조선시대 통신사를 종합적으로 다룬 대규모 특별전이 서울에서 열린 것은 1985년 한일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도쿄박물관이 공동 기획한 특별전이 1985년 도쿄《朝鮮通信使:近世200年の日韓文化交流》, 1986년 서울《朝鮮時代通信使》에서 개최된 이래 40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부산을 중심으로, 2017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한 전시 등 다양한 통신사 관련 전시가 양국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번 특별전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칫 딱딱하거나 식상하게 여겨질 수 있는 통신사를 보다 친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내려는 기획자의 고민이 곳곳에서 엿보였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국가 외교 사절단, 통신사>, 2부는 <평화가 흐르는

\*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대학 조교수

<sup>1</sup> 양산시립박물관에서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통신사를 다룬 특별전 《조선통신사와 양산》이 5월 16일부터 7월 27일까지 개최되었다. 지면의 한계로 본문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이 전시는 통신사와 지역의 관련성을 짚으며, 일본 여러 기관의 흥미로운 통신사 관련 유물들을 국내에 공개한 중요한 전시이다.

길>, 3부는 <바다를 건너 흐르는 문화>라는 제목 아래 전개된다.

1부 <국가 외교 사절단, 통신사>에서는 외교 관련 서적과 사행록을 통해 국가 간 대등한 외교 사절이자 신뢰의 상징으로 수행했던 통신사의 공적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외교 재개를 둘러싼 조선의 깊은 고민을 비변사 관료들이 한겨울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비유한 영상을 배치하여, 전시된 유물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2부 <평화가 흐르는 길>에서는 통신사가 조선 국왕의 국서를 쇼군에게 전달하고 회답서를 받아오는 핵심 임무를 수행한 여정을 다루었다. 한양에서 에도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을 각종 회화 및 문헌 자료를 통해 다각도로 조망하며, 통신사 파견이 정중한 절차에 따라 공들여 준비되고 이루어진 공식적인 외교 의례임을 강조했다. 국서를 전달했던 에도성의 오히로마를 상징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교토 센뉴지 소장 <통신사환대도> 병풍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의 직관적 이해와 몰입을 도운 점도 눈에 띈다. 또한, 선단도를 비롯하여 일본인과 조선인 화원이 그린 통신사 행렬도, 통신사의 귀로 여정을 담은 두루마리를 길게 전시하고, 2부 말미에는



<통신사환대도> 병풍 전시 장면 (서울역사박물관 제공)

육로와 해로를 넘나드는 여정을 디오라마 기법을 활용한 실감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재현하여, 수개월에 걸친 긴 여정을 더욱 실감나게 전달했다.

3부 <바다를 건너 흐르는 문화>에서는 두 나라 간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확장된 문화 교류와 개인 간 유대를 조망했다.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시문과 편지, 조선인이 남긴 서화로 꾸며진 병풍, 통신사 행렬 관람 가이드북 등을 통해 통신사가 민간에서 끼친 영향을 다양한 층위에서 살펴보았다. 전시 말미에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두 나라 학자들 간 성리학 논쟁을 필담을 주고받는 모습과 음성을 통해 그 장면을 재현하며 전시의 여운을 이어갔다.

언제나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일 관계 속에서 이번 전시는 이웃 나라 간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신의를 지키는 태도를 되새기며, 통신사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되짚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 40여 년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가 다시 촉매제가 되어, 통신사 관련 다양한 연구가 더욱 깊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새로운 통신사 전시가 열리기를 기대해본다.